

# 2003년 12월 26일 이란 남동부의 지진

Earthquake in Southeastern Iran of 26 Dec. 2003

학회편집위원회

## 1. 서론

2003년 12월 26일 새벽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의 유적도시 밤 시(市)(29.011°N, 58.290°E)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지진피해가 커지면서 사망자가 최대 4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구조작업이 지연되어 아직 건물 잔해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라크 샤리피 케르만주 의료단장은 잔해에 깔려 죽은 2만 5천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며, 아마드 페제시키언 이란 보건 장관은 최대 7만여 명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구호활동이 늦어지는 데다 강력한 여진 가능성까지 우려되면서 밤 시의 생존자 중 상당수가 피해 지역을 빠져나갔으며, 이로 인해 밤 시와 주도인 케르만을 잇는 도로가 피난민을 태운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보였다. 당시 이란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구조팀과 구조물자를 밤시에 파견해 구조활동에 들어갔으나 장비부족과 추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비록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었지만 미국은 이란에 6만7천5백톤의 구호품과 함께 구조팀과 의료팀을 파견하였다. 유럽연합(EU)은 이란 긴급구호 지원자금을 당초 배정했던 80만 유로에서 320만 유로로 4배 늘렸으며, 유엔은 영국, 독일, 러시아, 스위스 등이 보낸 구호 물자가 피해지역에 도착했고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구조대의 활동도 시작됐다고 밝히고 각 회원국들에게 이란 지원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지원을 환영한다며 각국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 2. 이란 40년간 지진피해사

이란에서는 지난 1991년 이래 약 1천번의 지진이 발생해 1만7천600명이 사망하고 5만3천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지진피해가 아주 심하다.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 때도 지진 피해가 잦았으며, 최악의 지진은 1990년 6월 북서부 길란주와 잔잔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과 수초만에 무려 4만 명이 사망했다. 가장 최근의 주요 지진 피해는 지난해 6월 이란 북서부 카즈빈, 하마단을 흔든 것으로 235명이 사망했고 1천 3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인도 아(亞)대륙이 북쪽의 유라시아 대륙을 미는 압력이 수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란의 주요 지진 피해사이다

### ❖ 이란 40년간 지진 피해사

#### ▲ 2002년 6월 22일

서부 카즈빈, 하마단주서 235명 사망, 1천300명 부상(리히터규모 6.3)

#### ▲ 1997년 5월 10일

동부 비르잔드市서 1천613명 사망, 3천712명 부상(리히터 7.1)

#### ▲ 1997년 2월 28일

북서부 아르다빌지역서 965명 사망, 2천600명 부상(이는 관변통계이며 구호기관들은 사망 1천 100명 추정)(리히터 5.5)

#### ▲ 1990년 6월 21일

이란 최악 지진 북서부 길란, 잔잔췌 강타.  
27개 도시 1천870개 마을 에서 3만7천명 사망,  
10만명 부상(리히터 7.7)

- ▲ 1981년 6월 11일  
동남부 케르만췌 1천28명 사망, 950명 부상.  
이어 6월28일 같은 지역서 두번째 지진으로 1  
천300명 사망
- ▲ 1978년 9월 16일  
동부서 2만5천명 사망.  
타바서市는 완전 폐허되며 1만5천명사망
- ▲ 1972년 4월 10일  
남부 파스췌 기르지역서 5천44명 사망, 1천336  
명 중상.
- ▲ 1968년 8월 31일  
북동부 코라산췌서 1만명 사망
- ▲ 1962년 9월 11일  
테헤란 서부 카즈빈 1만2천명 사망

### 3. 이란 왜 지진 자주 일어날까

무려 2만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드러난 이란 남동  
부 케르만주(州) 소재 문화유적 도시 밤 시(市)는 지  
진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란에 위치해 있

으며, 고대 페르시아시대 때도 피해가 잦았다. 이란  
최악의 지진은 지난 1990년 6월 북서부 길란주와 잔  
잔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과 수초만에 무려 4만명이  
사망했다. 당시 2천100km<sup>2</sup>의 피해 지역을 덮친 리히  
터 규모 7.3의 지진은 27개 도시와 1천 871개 마을을  
삼켜 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다.

이란 주변 지역인 터키,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프  
가니스탄 등지에서도 지진이 잦다. 이 지역 국가들의  
잦은 지진 원인은 인도 아(亞)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으  
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바다 밑 지판 이동에  
서 발견된다. 지금부터 7천만년전 인도는 미래의 유  
라시아 대륙에서 7천km 이상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점진적인 지판 이동으로 인도는 북쪽의 유라  
시아 대륙과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만났으며  
그후 끊임 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북쪽으로 밀고 있  
다. 이처럼 미는 압력은 두 대륙이 충돌하기 전 3천만  
년 동안에는 매년 10cm 정도였으나 두 대륙이 충돌  
한 다음인 지금은 5cm 정도로 완화됐다. 바로 이 인  
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을 미는 과정이 아직도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격렬  
한 지진과 충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판 이동  
에 따라 인도 대륙이 북쪽으로 미는 압력으로, 또 히  
말라야의 세계최고봉들이 생겼으며, 인도의 낮은 평  
원들도 만들어졌다.